재난시대와 불교

현대불교 32th 1994~2026
제 1598 호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B1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재난 고통 치유한 불교
자비로 일상 이어내다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홍수 등의 재해가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불길이 멎고 물이 빠진 뒤다. 재난의 시간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돌아갈 집을 잃은 주민에게는 오늘을 버틸 끼니와 잠자리가 필요하고, 가족을 떠나보낸 이에게는 슬픔을 견딜 시간이 필요하다.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일과 상처 입은 마음을 돌보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산불과 집중호우, 가뭄에 더해 지진과 감염병, 사회적 참사까지. 재난은 삶의 여러 자리에서 공동체의 대응 역량을 묻고 있다. 이때 불교의 자비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어떻게 닿고 있는가.

불교는 오랜 시간 재난을 겪는 이들의 곁에 있었다. 삼국시대에는 가뭄과 질병, 전쟁 희생자를 위한 의례가 봉행됐고, 고려시대에는 사찰에서 굶주린 백성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조선시대에도 스님들은 급식과 구료, 시신 수습에 참여했다. 수륙재를 통해 망자를 추모하고 살아남은 이들의 마음을 위안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1925년 을축대홍수 당시 봉은사 주지 청호 스님이 배를 마련해 주민들을 구하고 사찰에 머물게 한 일은 이러한 전통을 보여준다. 재난 구호의 역사에는 생명을 살리는 행동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나란히 자리한다.

그 바탕에는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동체대비의 정신이 있다. 삶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연기의 가르침은 재난의 고통을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게 한다. 자비는 그 연결을 구체적인 도움으로 옮기는 실천이다.

오늘날 그 실천은 국내외 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불과 수해 대피소에 생필품을 전하고, 가뭄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에 식수를 지원하며,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의 곁을 지켰다. 사찰과 문화유산이 재난의 피해를 입는 가운데서도 종단과 사찰, 복지기관과 자원봉사자들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탰다.

국경 밖에서도 자비의 손길은 이어졌다. 조계종 긴급구호단은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고, 아름다운동행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임시 주거 공간을 마련한 뒤 생활 여건을 보완했다. 로터스월드는 현지 단체와 협력해 구호 활동을 펼쳤으며, 더프라미스는 아동의 마음 회복과 구호 활동가의 소진 예방까지 살폈다. 재난의 규모만큼 피해자의 생활과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는 일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 같은 활동이 지속되려면 따뜻한 마음을 구체적인 역량으로 연결할 준비가 필요하다. 현장에 나선 수행자와 전문 인력이 적절한 역할을 찾고, 지원이 끝난 뒤에도 경험과 협력 관계가 축적돼야 한다. 개인의 원력에 기대 온 돌봄을 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 인력 연결, 사후 지원 체계를 갖추는 일이 과제로 남는다.

종단과 사찰, 구호단체가 평소 협력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와 접점을 넓혀야 한다. 누가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준비가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마음 돌봄의 방식도 돌아봐야 한다. 재난을 겪은 이에게는 안전과 식사, 충분한 휴식이 먼저일 수 있다. 고통을 전생의 업으로 단정하거나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재촉하는 말은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원하는 때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찰의 숙박과 음식, 휴식 환경을 활용해 피해자와 봉사자의 회복을 돕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재난시대에서 불교의 역할은 일상의 삶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한마음선원의 EM 보급과 교육, 상불사의 텃밭 나눔, 도림사의 폐현수막 활용 등은 소비와 생활습관을 바꾸는 실천이다. 모든 생명이 서로 의지한다는 연기의 가르침은 자원을 아끼고 생명의 터전을 지키는 행동으로 구체화된다. 기후·생태 위험을 줄이는 일 역시 재난시대에 필요한 자비행이다.

재난을 겪은 이들이 다시 일상을 꾸릴 때까지 함께할 준비가 돼 있는가. 고통의 현장에서 시작된 이 질문은 오늘의 한국불교가 답해야 할 과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